

자동차업계, 미·중 압박에 '초긴장'

한미 FTA 재협상 압박 중국의 반한감정 확대

자동차업계가 세계 2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이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THAAD)를 빌미로 반한 감정을 키우고 때문이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자동차업계는 타격을 입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부문 대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재협상시 집중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실익이 국산 자동차보다 크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지속 늘었던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지난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한미 FTA 발효 1년차인 지난 2012년 108억 33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60억 1800만 달러로 48%나 상승했다.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관세가 완전 철폐됐던 지난해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수출시 4년간 적용됐던 관세 2.5%는 지난해부터 완전 철폐됐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10.5% 감소세를 기록했다.



NBA 레전드들이 토이로 지난 17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예비뉴얼 아트홀에서 한국 피규어 아티스트 그룹 '쿨레인 스튜디오(Coolrain Studio)'와 토이 기획사 '마인드 스타일(Mind Style)'이 협업해 미 프로농구(NBA)의 전설적 선수들을 모델로 한 토이 전시회 'NBA 레전드'전이 열려 시민들이 NBA 스타들의 피규어를 관람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성장률(금액 기준)은 2012년 8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30%, 2016년 37% 등으로 크게 성장했다. 한미 FTA로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입 관세는 기존 8%에서 4%로 즉시 내려졌고, 지난해는 관세 철폐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더 유리한 조

건이 만들어질 경우 수출뿐 아니라 내수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움직임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사드 배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중국의 반한 감정이 커질 경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3개 섬

의 국유화를 강행하자 중국 내에서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번졌고, 일본 자동차는 판매가 한 달 새 절반으로 떨어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을 겨냥하면서 불매 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1회 충전 383km '볼트 EV' 계약 시작

구입 가격은 보조금 포함 2000만원대

쉐보레(Chevrolet)가 383km의 획기적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 받은 순수전기차 볼트EV(Bolt EV)의 4월 본격 출시에 앞서 지난 17일, 판매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쉐보레 전시장에서 계약 접수를 개시한다.



국가표준원이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단일 표준으로 선정된 DC 콤포 충전 방식을 채택한 볼트EV는 1시간 급속충전으로 전체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해 300km 이상 주행하며 기존 전기차의 활용성을 제한해왔던 주행거리 계약을 탈피했다.

볼트EV의 일반 고객 구입가격은 올해 책정된 국고 보조금 1400만원과 지역별로 최대 1200만원까지 주어지는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포함해 2000만원대에 책정됐다.

볼트 EV는 준중형차급 공간을 확보한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전기차 전용 고강성 차체에 고효율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204마력의 최고출력과 36.7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특히 수평으로 차체 하부에 배치한 배터리 패키지는 실내공간 확대와 차체 하중 최적화에 기여하며, 쉐보레 최초로 볼트EV에 적용

된 전자정밀 기어시프트와 전기차에 최적화된 전자식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은 시속 100km까지 7초 이내에 주파하는 전기차 특유의 다이나믹한 퍼포먼스와 함께 어울려 정밀한 주행감각과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볼트EV는 견고한 경량 고강성 차체구조에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등 폭넓은 예방 안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10.2인치 대형 터치스크린 이 제공하는 쉐보레 마이링크(MyLink)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8인치 스마트 디지털 클러스터는 애플 카플레이를 포함한 첨단 커넥티비티 시스템 활용과 전기에 너지 모니터링을 제공해 진일보한 IT 기술과 새로운 차원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문정근기자

가전업계, 이란 내부 알력다툼에 수출 타격

반조립 가전제품에 완제품과 동일한 55% 관세 물려... 관세청-산업광물통상부 마찰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 중동의 '약속된 땅' 이란의 내부 알력다툼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란 관세청(IRICA)은 지난해 12월부터 반조립(CKD) 가전제품에 완제품과 동일한 55% 관세를 물리는 방침을 세워 반조립 가전제품 수출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등이 곤혹스런 상황이다.

한국 업체들이 이란에서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닌 현지 업체에 반조립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지만 막대한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구 8300만명 규모의 이란은 중동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국가로 세계 3위 규모의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강국이다. 지난해 1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각 산업분야의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의 가전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제품의 가전시장 점유율은 65%, 이중 한국 제품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브랜드는 이란 내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이란 정부는 고용창출과 외국 회사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외산 완제품에 고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번에 관세청이 반조립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LG전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업체가 지난해 12월 과징금

7억5000만 달러(약 8486억원)를 부과 받았고,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 현지 업체는 최근 8940만 달러(약 1012억원)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란의 세관 당국이 갑자기 관세 부과 방식을 달리 적용하면서 불거진 문제"라며 "이란 관세청이 갑자기 반조립된 부품 완제품으로 취급하며 높은 관세를 매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란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산업광물통상부는 부품에 대한 관세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벌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관세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 업체들은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저마다 현지 업체와 손을 잡고 반조립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고 있다.

이는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으로서 낮은 세율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현지에서는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한국에서 이란으로 수출되는 반조립 가전제품에 이같은 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란 내부에서 중도개혁과 강경보수파의 대립이 심화되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큰 피해는 없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내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현지생산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KT, 비디오플랫폼 '두비두' 가입 이벤트

신규고객 추천 뷰티 세트 제공

KT는 밴드인터네셔널과 함께 'dovido(두비두)'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밴트36.5' 뷰티 세트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월 2일까지 두비두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신규 가입한 회원이 가입 시 등록한 메일계정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응모된다.

뷰티 세트 구성은 공동 이벤트 시즌 1에서 제공하는 클렌징폼, 글로우미스트, 카멜리아크림으로 구성됐다. 시즌 2, 3에서는 페이스에이드, 선데이 크림, 펄CC 크림, 어드밴스드 화이트닝 세럼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두비두와 밴트36.5는 이번 공동 이벤트 추진과 더불어 양시간 전

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계약내용은 ▲밴트36.5 제품을 활용한 PPL 동영상 콘텐츠의 공동 제작 ▲두비두 크리에이터 대상 뷰티제품 지원 ▲시즌별 제품 협찬 이벤트 및 특판 프로모션 ▲해외 시장 공동 진출 등이다.

강민호 KT NB플랫폼개발담당 상무는 "두비두가 출시 6개월만에 모바일 기준 MAU(Monthly Active User) 60만을 돌파하면서 양과 질적인 면에서 '뷰티 전문 비디오 플랫폼'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발견했다"며 "하반기부터는 한류 중심의 뷰티 브랜드들과 결합한 공동 마케팅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신청 288-9700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